



여수박람회 '사이클 릴레이 홍보' 마무리

# 유치열기 전국 확산 '스타트'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9일 시작된 '사이클 릴레이 홍보'가 26일 여수를 마지막으로 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11시, 흥겨운 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수시청에 도착한 사이클 홍보단은 행사장 양쪽에 도열한 300여 명의 여수시민들과 만남의 기쁨을 나누는 뒤 오현섭 여수시장에게 전남도민 10여만명의 유치 지지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와함께 전남지역 기관·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1천여 명의 유치 열원이 담긴 서명부도 전달했다.

사이클 홍보 마지막 방문지인 이번 여수 행사에는 특히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협정식'을 체결하기 위해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참석, 흥을 북돋았다.

축사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여수가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섭 시장은 "박람회 유치를 열망하는 여수시민의 의지를 전남과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 홍보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모두의 염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박람회 여수 유치를 기쁘고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일보와 전남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남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주민 10여만명과 기관·단체장 및 시민·사회단체장 1천여명이 '여수박람회 유치기원 서명부'에 서

전남도내 22개시·군서 10만여명 참여 8일 대장정...가는곳 마다 열렬한 기원

명하는 등 여수박람회 유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생활체육 전남자전거연합회 원 40명으로 구성된 사이클 릴레이 홍보단이 방문한 지역에서는 풍물패가 흥을 돋우는 가운데 해당 지역 단체장과 공무원, 지역기관장, 주민 등이 마중나와 '여수박람회 유치'를 기

원했다. 지역민들은 경찰차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도로를 달리는 사이클 홍보단을 향해 손뼉을 치는 등 뜨거운 환영과 격려를 보냈으며, 각 지역의 자전거 동호회원들도 사이클 홍보단과 함께 페달을 밟았다.

22개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춰 다채로운 환영행사를 마련했다. 영암

과 무안 등 10여 곳에서는 2012세계박람회를 상징하는 2천12개의 풍선을 날렸으며, '나비축제'의 본고장 함평에서는 사이클 릴레이 홍보단의 손에서 2천12마리의 나비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세계박람회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사이클 릴레이 홍보단이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보며 박람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유치 열기를 확산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서울시와 전남도·여수시 간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후원 협정식'이 26일 오전 여수시청에서 열렸다. 서울시는 이번 협정을 통해 여수박람회 홍보물에 서울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박람회 유치에 지원을 약속했다. 왼쪽부터 박준영 전남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김재철 박람회유치위원장, 오현섭 여수시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여수 환희의 눈물 흘릴수 있도록 서울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여수박람회 후원 협정 체결 오세훈 서울시장

26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협정식'을 체결하기 위해 여수시청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번 박람회 유치실패 당시 여수가 흘려야 했던 절망의 눈물이 이번엔 환희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평창과 세계육상선수권 유치를 추진하는 대구와도 '유치 지원협정'을 맺었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 여수를 찾아줘 고맙다. 여수는 몇 번째 방문인가. **▲** 당연히 와야 하는 것 아닌가. 여수의 박람회 유치에 미려한 힘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달음에 달려왔다. 여수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순천과 함께 방문하면서 항일암에 들렀었다. 개인적으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국내선을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 어떤 식으로 후원을 할 계획인가.

**▲**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박람회 유치를 위해 서울시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면, 또 유치위원회가 '하명'만 한다면 역량을 아끼지 않고 협조할 생각이다. 박람회 유치가 확정되는 날 모두가 열싸안고 기쁨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여수박람회가 서울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 서울시장 선거에서 '임기 내 매년 외래 관광객 1천200만 명 방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람회가 유치된다면 여수와 전남에도 좋겠지만 솔직히 서울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 한나라당의 지원도 절실한데.

**▲** 그렇게 생각한다. 한나라당 차원의 지원이 어떻게 계획되고 또 이뤄지고 있는지 서울에 돌아가는 대로 확인해보고 평가하도록 노력하겠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은 26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발효를 계기로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 보완, 전문공연장 건립 등 다양한 현안을 광주시,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설계자와 협의, 문화전당 랜드마크 보완”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은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랜드마크 논란과 관련, "설계자의 철학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지역의 여론 수렴, 설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설립은 광주시민 전체의 의견이나, 일부의 견이나 하는 문제가 있지만 설계자와 협의해 해결점을 찾은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수개월 동안 랜드마크 논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어린이 지식박물관과 다목적복합공연장 부분을 지상으로 노출시키고, 참관공법에 의한 테

양형 집열관 설치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경제성 논란에 대해서는 "기초 예술(문화)을 가지고 돈을 벌기는 쉽지 않지만 경제성과 공공성의 조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종합계획은 광주시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적어도 5월말까지 발표될 기미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규승 설계자는 2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건립에 대해 정책적으로 설계변경은 가능하지만 변경 시 1년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 공연장을 문화전당 부지 밖에 두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 바 있다. 문화부는 오는 4월 초 유규승 설계자가 미국에서 입국하는 대로 전문공연장 건립을 비롯한 랜드마크 기능 보완을 위한 설계변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안정적 재원운영...사업추진 탄력

표문화수도 특별법 발효

5월초까지 종합계획 마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오는 28일 특별법 발효로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26일 문화관광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법적·상징적 위상 확보는 물론, 국책사업의 기반 공고화를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 및 절차, 추진 주체, 재원 등 각종 정책기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 안정적이고 유연한 재원운영이 가능케 됐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협조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12월 7일 예비종합계획이 발표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4월 중에 광주시와

주요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초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발효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예정이지만 ▲광주시의 재원조달 문제 ▲문화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문화부와 광주시의 이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속 사무국 편성(송재구 위원장 요구) 미반영 등의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총 투자 재원(안)은 약 4조8천억원이다. 이중 시비 분담액이 6천억원에 달해 재정현황상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비 분담액 2조4천억원 가운데 6천억원이 균특회계 예산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시의 분담은 1조2천억원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시는 게임산업을 비롯해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문화부는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송재구 조성위원장이 요구해 온 조성위원회 산하 사무국 편성도 받아들여 지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